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 사회탐구 영역

-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십시오.
- 매 선택과목마다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어제보다, 더!**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쓰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 1선택’란부터 차례대로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생활과 윤리 ..... 1, 2, 3, 4 쪽

※ 감독관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번호

1. 고대 동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정치란 바로잡는 것이다. 올바르게 통솔한다면 어느 누가 감히 바르게 되지 않겠는가? 군자의 덕(德)은 바람과 같고 백성의 덕은 풀과 같으니, 풀 위로 바람이 지나가면 그 풀은 반드시 쓰러질 것이다.  
 을 : 성인(聖人)은 말한다. 내가 무위(無爲)할수록 백성들이 저절로 교화되고, 내가 고요할수록 백성들이 저절로 바르게 되며, 내가 일을 꾸미지 않을수록 백성들이 저절로 부유해지고, 내가 욕심이 없을수록 백성들은 저절로 소박해진다.

- ① 갑 : 법을 배제하고 덕으로만 다스려야 한다.
- ② 갑 : 군주는 수양을 통해 덕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 ③ 을 :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고 다스려야 한다.
- ④ 을 : 백성이 무지·무욕하게 살 수 있도록 통치해야 한다.
- ⑤ 갑, 을 : 사욕(私欲)을 버리고 도에 따라 살아야 한다.

2. 갑 사상이자 을 사상이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경향성에 따라 결심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행복을 증진해야 하는 것은 경향성 때문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이라는 법칙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경향성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에 행위 할 때 비로소 그 행동은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을 : 행위는 행복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옳은 것이 되고, 행복에 반대되는 것을 산출하는 데 기여하는 정도에 비례해 그른 것이 된다. 그런데 쾌락을 평가할 때에는 양 외에 질도 고려해야 한다.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낫다.

— < 보 기 > —

ㄱ. 자기 행복은 도덕의 목적이 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ㄴ. 선의지로부터 나온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님을 간과한다.  
 ㄷ. 행복과 만족이라는 전혀 다른 두 관념을 혼동하지 말아야함을 간과한다.  
 ㄹ. 자신의 행복에 마음을 쓰는 것은 도덕적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음을 간과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3.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각 개인에게는 신께서 지정하신 생활 방식이 있다. 그것은 일종의 초소와 같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명에 순종하여 따른다면 아무리 비천하고 낮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밝게 빛나고 매우 존귀한 것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을 :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노동할 때 자기 자신을 불행하다고 느끼고, 정신적·육체적 에너지를 자유롭게 발전시키지 못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분업은 노동의 생산력과 사회의 부(富)를 높여 주지만, 노동자를 특정한 능력만 반복 사용하는 기계로 만든다.

- ① 갑 : 부지런히 일하며 이웃에 봉사하는 것이 신의 뜻이다.
- ② 갑 : 모든 소명은 존귀하기에 직업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 ③ 을 : 기술적 분업의 심화는 노동자의 자율성과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온다.
- ④ 을 : 인간의 본질 실현을 위해서는 사적 소유의 폐지와 분업의 철폐가 필요하다.
- ⑤ 갑, 을 : 노동의 본질을 생계유지의 수단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4. 갑, 을 사상이자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 모든 공동체는 선을 추구하는데, 모든 공동체 중에서도 최고이며 다른 모든 공동체를 포괄하면서 최고선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다른 어떤 국가 또는 정치 공동체이다.  
 을 : 어떤 정부의 영토의 일부분을 소유하거나 향유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럼으로써 묵시적 동의를 한 셈이며, 적어도 그러한 향유를 지속하는 동안, 그 정부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그 정부의 법률에 복종할 의무를 진다

- ① 갑 : 정치적 의무는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서 유래한다
- ② 갑 :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간의 합의에 의해 국가가 발생한다.
- ③ 을 : 명시적 동의를 한 사람만이 정치적 의무를 지게 된다.
- ③ 을 : 입법권을 항상 지닌 국민이 신탁을 위반한 정부를 교체할 수 있다
- ⑤ 갑, 을 : 국가는 개인의 집합체이므로 개인이 국가에 우선한다.

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갑: 사형은 고통받는 인격 안의 인간성을 끔찍하게 만들 수도 있을 모든 가혹 행위에서 범죄자를 벗어나게 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시민 사회가 모든 구성원의 동의로써 해체될 때조차도 감옥에 있는 마지막 살인자는 먼저 처형되어야만 한다.

을: 사형은 어떤 의미에서도 권리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이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 이상, 그 권리를 타인이나 일반 사회에 양도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에 무엇보다 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도임을 고려해야 한다.

병: 형벌의 주된 목적은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위법자의 행위이거나 그 밖의 타인들의 행위이다. 그런데 모든 형벌은 그 자체로 악이다. 공리의 원칙에 의거하면, 만약 어쨌든 형벌이 허용되어야 한다면 오직 그것이 더 큰 악을 제거하리라고 보장하는 한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나)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탐구한다.

갑의 입장: 예

을의 입장: 예

병의 입장: 예

판단 방향: 아니오

판단 내용: 예

출발 조건: 예

사상가의 입장: 예

판단 방향: 아니오

판단 내용: 예

출발 조건: 예

사상가의 입장: 예

판단 방향: 아니오

판단 내용: 예

출발 조건: 예

사상가의 입장: 예

- 〈보기〉
- ㄱ. A : 사형은 살인범을 목적적 존재로 존중하기 위한 형벌인가?  
 ㄴ. B : 형벌의 정당성은 형벌의 범죄 예방 효과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는가?  
 ㄷ. C : 사형보다는 종신 노역형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가?  
 ㄹ. D : 형벌의 크기는 범죄자가 위법 행위로 얻는 이익을 능가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6.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갑: 만일 평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균등이 요구하는 제도의 체계를 가정할 경우에 처지가 나은 자들의 더 높은 기대치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의 기대치를 향상시키는 체제의 일부로서 작용하는 경우이다.

을: 확대 국가를 옹호하는 분배적 정의론은 분배를 위한 재화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개인이 정당한 소유 자격을 갖는 소유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병: 불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분배 원칙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사회적 가치 x도, x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단지 누군가가 다른 가치 y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y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

(나)

갑

을

병

갑 → 을 (A)

을 → 갑 (B)

을 → 병 (C)

병 → 을 (D)

갑 → 병 (E)

병 → 갑 (F)

〈범례〉  
 → : 비판의 방향  
 A~F : 비판의 내용

〈예시〉  
 (갑) → (을) (A)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

- ① A : 타고난 재능의 차이 그 자체가 불공정함을 간과한다.  
 ② B : 분배 정의에 관한 정형적 원리는 사회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③ D : 분배가 정의로운가는 이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달려 있음을 간과한다.  
 ④ F : 사회적 가치의 분배에서 문화적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⑤ C, E : 분배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독점은 부당함을 간과한다.

7.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시민 불복종은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지도되고 정당화되는 정치적 행위로서 개인적인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 교설에 의거해서는 안 되며, 공유하고 있는 다수의 정의관에 의거해야 한다. 시민 불복종은 신중하고 양심적인 정치적 신념의 표현인 청원의 한 형태이다.

을 : 시민 불복종에서 실제로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그른 어떤 것을 중단시키려 한다고 확신할 때, 우리는 우리가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법과 민주주의에 가할 타격, 즉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 봐야 한다.

- ① 갑 : 시민 불복종은 반드시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② 갑 : 시민 불복종은 사회적 협동의 기본 원리에 근거한 정치적 행위이어야 한다.
- ③ 을 : 시민 불복종은 불복종으로 인한 결과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④ 을 :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다수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법은 모두 제외된다.
- ⑤ 갑, 을 : 시민 불복종을 하는 사람은 위법 행위에 따른 처벌을 수용해야 한다

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종교적 인간은 그가 처해 있는 역사적 맥락이 어떠한 간에 항상 이 세계를 초월하면서도 이 세계 안에서 자신을 현현하는, 그럼으로써 이 세계를 성화하고 또 그것을 실재적인 것으로 만드는 성스러운 것, 절대적 실재가 있다고 항상 믿는다. 성스러운 것이 성현 속에서 그 스스로를 현현할 때, 그것은 공간의 균질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무한히 넓은 주위의 비실재에 대립하는 절대적 실재를 계시한다.

- 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자연 자체가 신이다.
- ② 인간은 세속에서 성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다.
- ③ 세속과 성스러움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
- ④ 성스러움이 현현함으로써 사물은 전혀 다른 것이 된다.
- ⑤ 종교적 인간에게 어떤 공간은 질적으로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 동물 학대가 그릇된 근본 이유는 인간의 도덕적 소질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과 관련된 인간의 의무는 사실 인간 자신에 대한 도덕적 의무일 뿐이다.</p> <p>을 : 동물 학대가 그릇된 근본 이유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 삶의 주체인 동물의 도덕적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p> <p>병 : 동물 학대가 그릇된 근본 이유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모든 유기체가 갖는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다.</p>
(나)	

< 보 기 >

ㄱ. A :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하는 모든 존재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ㄴ. B : 내재적 가치를 갖는 대상은 한낱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ㄷ. C : 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해를 입힐 경우 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ㄹ. D : 동물 학대는 동물에 대한 인간의 직접적 의무에 위배된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10. 현대 서양 사상가 잭, 율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잭 : 질서 정연한 사회들의 장기 목표는 고통받는 사회들을 질서 정연한 만민의 사회로 가입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질서 정연한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원조의 의무를 실행하게 하는 유일한 또는 최선의 방법은 사회들 간의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분배 정의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라는 점은 추정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그러한 원칙들은 명확히 규정된 목적, 목표 또는 차단점을 가지지 않는다.

율 : 공평한 방식으로 시험해 볼 때, 자국민의 이익을 앞세울 만한 충분한 근거는 거의 없으며, 우리에게서 얼마 되지 않는 비용을 가지고 실로 곤궁한 타인의 복리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때마다 발생하는 의무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아예 없다.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에 대응하는 문제는 공적인 정의 개념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규제되지 않는 사회의 문화를 변화시키려는 장기적인 목표보다도 훨씬 급박한 문제이다.

- ① 잭 : 국가 간 자원 배분의 유연성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원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잭 : 고통받는 사회가 부유하면서도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때까지 원조를 해야 한다.
- ③ 율 : 원조 주체의 경제력은 원조 결정 시 고려 사항이 아니다.
- ④ 율 : 원조와 관련하여 정치 문화 개선보다 절대 빈곤 해결이 시급한 문제이다.
- ⑤ 잭, 율 : 원조는 인권을 보장하는 민주적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해야 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모든 문항의 저작권은 EBS에 있음을 밝힙니다.